



1868~1943

날으는 홍범도장군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창간호

여름

2014. 6. 1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 기념국민대회

- 일 시: 2014. 6. 7(토) 오전 11시
-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주 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후 원: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
남양홍씨종친회

□ 기념식

- 기념사: 이종찬 이사장
- 치 사: 국가보훈처장
- 축 사: 광복회장 재향군인회장
- 강 연: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주 제: 봉오동전투와 서간도 동포

〈이사장 창간사〉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선양하는 길잡이 역할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

‘백두산 호랑이’, ‘날으는 홍범도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출귀몰하게 일본정규군과 싸웠던 위대한 무장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을 창간합니다.

장군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고, 독립운동 전선에 전 가족을 바치신 분입니다. 말년에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외롭게 순국하셔서, 장군의 유해는 아직도 그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장군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과 혁혁한 무장항일운동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장군께서는 비록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어렵게 성장했지만,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무장독립투쟁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1907년 일본이 의병활동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류단속법을 공포하고 포수들의 총과 실탄을 압수하려 할 때, 포수들을 중심으로 항일의병대를 조직하여 함경도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일제의 추격과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군의 모체인 포수단을 조직하여, 의병활동을 체계적인 전투역량을 갖춘 독립군으로 발전시켜 1919년에 대한독립군을 창설하셨습니다.

1920년 6월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일본 정규군과 싸워, 독립전쟁사상 최초의 접전인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10월에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통하여 일본군을 섬멸하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앙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장군께서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외롭게 최후를 마쳤지만, 동포들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고려인들의 안정과 단합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장군의 업적과 높은 뜻을 한층 더 선양하기 위해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호의 회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보가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선양하고, 분단된 조국의 완전한 광복을 위하여 기여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중 찬

2014년도 제1차 임원회의, 회칙 개정 및 임원 개선안 의결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제1차 임원회의가 지난 3월 28일, 종로구 인사동 소재 한식점에서 이종찬 이사장과 이우재 고문을 비롯한 18명의 임원들이 모여, 정관개정과 임원개선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관 개정은 지정기탁금단체 지정을 위하여 제42조(청산)을 “본회를 해산할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청산인이 본회의 잔여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로 부분 개정했다. 또한 4월 13일로 임기가 만료

된 이사와 사퇴 임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 5명 임원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구성 일체를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2013년도 결산안과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봉오동 전승 94주년 행사와 팜플렛 발간계획을 보고받았다.

한편 임원 선임을 위임받은 임원선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우당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별지 표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였다.

신임 진익산, 강영선 이사에게 선임장 수여



〈강영선 신임 이사〉



〈진익산 신임 이사〉



〈김성훈 신임 청년부장〉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오후 우당기념관에서 이종찬 이사장 주관으로 신임 이사로 선임된 진익산, 강영선 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하고, 김성훈 신임 청년 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

였다.

이날 선임장을 받은 진 이사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진테크의 대표이사이며, 강영선 이사는 김 생산 및 유통업체인 에스지푸드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청년부장으로 발탁된 김성훈씨는 KDB대우증권에 근무하는 홍범도장군 매니아이다.

카자흐스탄 계 니콜라이 회장, 신 블로리니 부회장 기념사업회 예방



〈계 니콜라이 회장(오른쪽)과 신 블로리니 부회장(왼쪽)〉

카자흐스탄 독립유공후손회 계 니콜라이 회장과 고려문화센터 신 블로리니 부회장이 4월 30일 우당기념관으로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을 예방하여, 홍범도장군 추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홍범도 장군 70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기념사업회와 인연을 맺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현지 고려인들에게 알려서, 동포들이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계 회장은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홍보책자가 필요하며, 크즐오르다 홍 장군 묘역 관리에 우리 정부당국에서 관심을 갖도록 보존당국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기념사업회 임원명단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이 사 장	이종찬/전 국가정보원장	자 문 위 원	우원상/대종교 전 원로원 원장 장치순/중앙대 명예교수 장의균/민예총 남북문화예술 교류위원장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정동화/전 문화경제신문 대표
상임이사	홍성덕/전 주독일 공사	사 무 처	총 장: 문준진/대상한전검침본부 부분부장 국 장: 박재옥/SL파트너스 대표 이상현/현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성택/스페이스 앤 플래닝 대표 김도경/한국여성문예위원장 신효승/연세대 박사과정 홍 보: 조수경/가수 이혜미/가수 부 장: 김성훈/KDB대우증권
이 사	손양호/조계종중앙박물관 후원회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홍성중/토금산업 대표이사 김희일/서울홍산문화중국어도자박물관장 이영철/4.19포럼기념사업회회장 황원섭/신홍무관학교기념산업회 공동대표 진익산/진테크 대표이사 강영선/에스지푸드 이사		
감 사	김창환/변호사 홍헌일/서대문감옥 원형복원연구회 회장		
고 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이우재/전 국회의원 김유진/전 국회의원 조성우/전 민화협 의장 박민자/대종교 전교		

〈봉오동전투 전승의 역사적 의의〉

봉오동전투 전승은 일본 정규군과 싸운 최초의 승첩 독립군과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얻은 값진 승리

6월 7일이면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이 되는 날이다.

홍범도장군이 주축이 되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대첩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고, 체계적인 저항조직을 결성하여, 치열하게 투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홍범도장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봉오동전투를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여 명의 전과를 냈고,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다소 과장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신문 상해신문보, 간도 국민회의 호외, 독립신문 등을 보면 일본군 피해는 120 내지 150명 내외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의 의미는

첫째, 일본인 몇명을 사살했다는 단순한 전투성고가 아니라, 대한북로독군부로 연합한 독립군 부대가 간도에 침입한 대규모의 일본 군 부대를 상대로 격전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독립군의 사기가 충천하였고, 무장투쟁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립군의 승리는 독립군뿐 아니라 전체 독립운동 조직과 동포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높여 주었다.

둘째, 중국 연변(북간도)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다수의 독립운동 조직들이 청산리전투 이후 일본군의 대대

적인 소탕작전과 야만적인 만행으로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여 북만주와 시베리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이 지역 민족운동의 흐름은 서서히 사회주의 계열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군이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른바 “토벌작전”중에 저지른 학살, 폭행, 방화, 강간 등 각종 만행은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과 구미 선교사, 심지어는 일본 국내 여론도 문제가 되어 반일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경과 길림에서 중국인들의 반일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중국 각지로 반일운동이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독립군의 “완전 토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21년 4월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상당수 중국인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보냈고, 한중 양 민족이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봉오동전투는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가는 물론 모든 동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거두어낸 값진 승리였다. 이와 같은 소중한 열매는 동포들의 엄청난 양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값진 희생을 치르고 얻은 소중한 대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에 어긋나지 않은 올곧은 길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란 모순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사회 개혁운동이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과 염원을 실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봉오동전투 전승 제93주년 기념 국민대회

일시 : 2013. 6. 7(금)오전11시

주관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후원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광복회



홍범도장군 70주기 추모행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 광복이후 최초로 거행된 관민합동 공식행사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장군의 서거 70주기를 맞아 작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고려인협회와 독립유공자후손회 공동으로 추모행

의 정체성"을 주제로 반병률 교수의 사회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서인한(전쟁과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심현용(세종대학교 강사), 김 게르만(카자흐스탄대학교 교수), 한 블라디슬라브(한창결장군 후손)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명드미트리(카자흐스탄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으로 알찬 세미나를 가졌다.

저녁에는 고려극장에서 극작가 태장춘의 극본으로 1941년 처음 공연된 연극 "홍범도"를 재연하여 모든 관객에게 장군에 대한 추모의 정을 새롭게 했고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더욱 놀란 사실은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이 전혀 한국어를 모르면서 한국말 대사를 암기하여 열연을 한 것이다.



<기념식>

사를 개최하였다.

오전에 개최된 추모식에는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와 백주현 주 카자흐스탄 대사, 손치근 주 알마티 총영사, 계 리콜라이 독립유공자협회장, 김 게르만 고려인협회 부회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서 고려인 합창단의 아리랑과 추모가 속에 헌화와 분향으로 위대한 항일무장 투쟁의 선봉장인 '백두산 호랑이, 날으는 홍범도장군'의 영전에 추모의 예를 올렸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하여 21명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행사를 거행한 것이다.

이날 오후 행사는 '홍범도장군의 독립운동과 고려인 사회



<홍범도 연극 공연>

10월 26일에는 항공편으로 장군께서 잠들어 계시는 크즐오르다로 이동하여, 고려문화센터 김 엘리나 회장의 안내로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는 감격을 함께 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복 차림을 한 교민들과 함께 헌화 분향하고, 장군의 생애를 연구 출판한 김유진 고문, 김삼웅 관장, 장세윤연구위원, 반병률 교수 등의 저서를 봉정하였다. 이어서 같은 묘역에 안장된 독립운동가이며 국어교육자이신 계봉우 선생의 묘소도 참배하였다.

작년 카자흐스탄 추모행사는 기념사업회에서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우재, 김유진 고문 등 21명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 추모제로, 국가보훈처의 후원과 현지 대사가 참여한 광복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민관합동 행사였다.



<묘소참배>

회원 및 관련단체 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종찬 이사장은 3월 6일 창립된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단체에서는 일제가 왜곡한 식민사관의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우당역사문화강좌를 주관하여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종로구 신문로 2가)에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분야 석학들을 초청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우재 고문

이우재 윤봉길의사 월진회 회장은 카자흐스탄 흥범도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83주년 기념행사(4. 26~29간)에 카자흐스탄 대표로 게 니콜라이 독립유공자후손회 회장과 신빌로리니 고려문화중심 부회장을 초청하여 기념행사와 동북아연대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희일 이사

김희일 서울 흥산문화 중국도자박물관 관장은 중국광둥성수장가협회와 공동주관으로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사동 서울흥산문화중국도자박물관에서 중국고대도자 한중교류특별전을 가졌다.



홍현일 감사

홍현일 감사는 5월 24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사학회 회원 20여 명을 초청, 감옥보존과 전시자료에 대한 해설을 하였다. 한편 홍감사는 월간 남양회보에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흥범도 장군” 제하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저술한 “흥범도 장군-자서전 흥범도의 일지와 항일무장투쟁”이란 저서를 한울아카데미에서 6월 초순에 발간한다. 반 교수는 작년 카자흐스탄 흥범도장군학술회의에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담당했다.



홍희표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총회 회장

洪熙杓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총회 회장은 3월 25일자로 ‘南陽洪氏宗報’를 창간하고 2호를 발간하였다. 홍회장은 “높은 숭조사상의 고취, 진실 중무행정의 실천, 종친인화단결 도

모”를 중훈

으로하여 화합과 단결로 중중발전을 다짐했다.



홍원기 남양홍씨남양군파 대종중회 회장

洪元基 남양홍씨남양군파 대종중회 회장은 3월 13일 새 회장으로 선출되고 월간 ‘南陽會報’ 193호를 발간하였다.

홍회장은 崇祖尙門 親和敦睦 子孝訓諭 英明輔成하는 중훈 실천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새로 선출된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홍원기 회장〉

(사진설명)
왼쪽에서부터
홍원기 회장,
홍성덕 상임이사,
홍삼표 편집장,
홍석호 부회장



홍재구 화성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

洪在九 화성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은 3월 26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성사적보존회를 화성당성사적보존회로 개명하였다.

홍회장은 재정확충과 회원 확보, 보존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신임 이사장과 감사들〉

(사진설명)
왼쪽에서부터
홍명근 감사,
홍재구 이사장,
홍순표 감사

오늘이 있음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도 경/시인, 한국여성문예원 원장

민족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당신의 흘린 많은 눈물과 땀을 기억합니다

올해 탄신 146주년
우리는 1920년 봉오동전투
청산리 대첩의 승전보
항일무장 투쟁의 지도자
홍범도 장군을 가슴 속 깊이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에 대항해 의병을 만들고 규합했던 북청의 아우성
1907년 70명의 의병으로 승전한 승리의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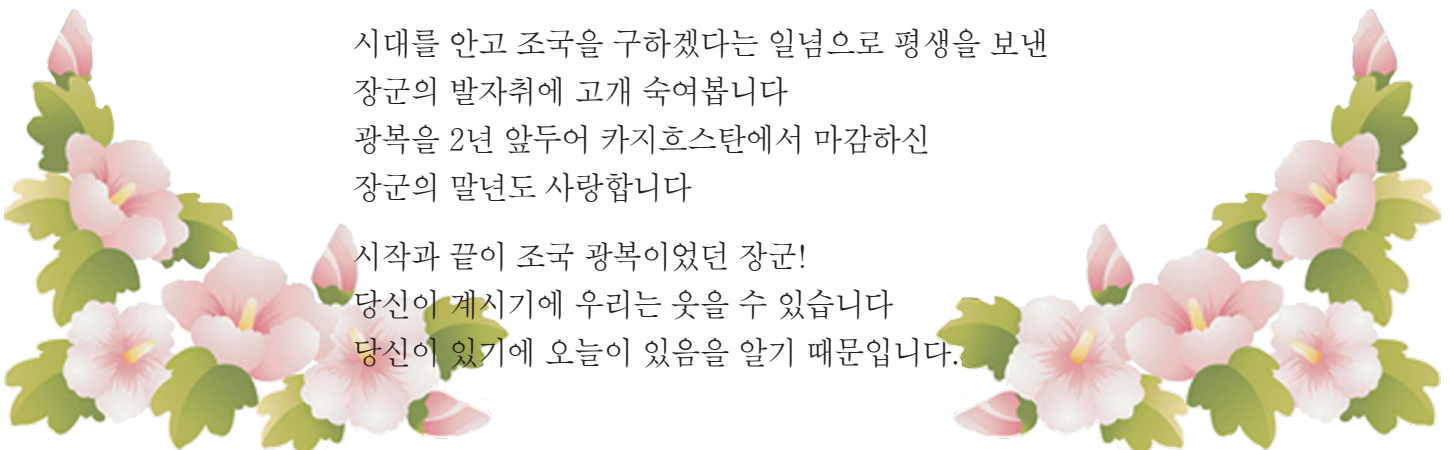
명성황후 시해를 기점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을 이름만으로도 떨게 만들었던 의병대장 홍범도
당신을 노래합니다

“홍 대장 가는 길에 일월이 명랑한데 일본군 가는 길엔 비가 내린다”
‘날으는 홍범도가’가 지금도 회자하듯이
그대는 겨레의 등불이요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1919년 조국을 찾기 위한 몸부림
대한독립군을 창설해 이어간 장군의 흔적, 흔적
총사령관 당신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시대를 안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보낸
장군의 발자취에 고개 숙여봅니다
광복을 2년 앞두고 카지흐스탄에서 마감하신
장군의 말년도 사랑합니다

시작과 끝이 조국 광복이었던 장군!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축 창 간

진테크

대표 진익산

Tel : 031-457-8395

토금산업

대표 홍성중

Tel : 031-561-8723

대상한전 검침본부

부분부장 문준진

Tel : 02-6269-0233

도서출판 수서원

대표 손광춘

Tel : 02-765-0924

강동수산주식회사

회장 홍중표

Tel : 02-3435-33054

서울홍산문화중국도자박물관

관장 김희일

Tel : 02-737-0324

4.19포럼기념사업회

회장 이영철

Tel : 010-5246-6870

서대문감옥원형복원 연구회

회장 홍헌일

Tel : 02-332-4001



한아름의
행복

저희 (주)에스지푸드에서는 깨끗하고 맛있는 애즈푸드를 생산, 가공합니다.
산지부터 원제품의 생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
고객님의 식탁위에 한아름의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SGF (주)에스지푸드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07-2
Tel : 031)637-5481 / Fax : 031)637-5484
주문제작 및 상담 : 영업팀 070-4636-1202